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솔직히

의심이 가거나 불편한 이에게 뭐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줄 땐 그냥 안 받을 요량하고 주고 말지 나중에 괜한 생각이 들까 해서 꾸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솔직히

미워하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원수 같은 이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뒷말하는 이들에게는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솔직히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들을 가까이 두고 싶고, 사랑하고픈 이들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완전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찮은 것은 하기 싫어지고 그냥 ‘대충’과 ‘적당히’라는 단어가 좋아집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처럼 ‘솔직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봅니다. 아마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결국, 나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이주형 예로니모 신부 | 완월동 본당 주임



제 1 독 서	레위 19,1-2,17-18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3,16-23
복 음	마태 5,38-48

주일 진레

낮은 데를 비추는 빛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랍비,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요한 9,1-3)

이청준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안요한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소설이지만 이청준의 입을 빌려 말하는 안 목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안요한 목사는 30대에 실명한 채 노숙자로 떠돌다가 목회자가 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빛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작품 속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안요한은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고 신앙인로서의 삶을 거부한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군사학교의 한국어 교관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던 그에게 뜻밖에 포도막염이라는 안질이 찾아오고 결국 완전히 실명하고 만다. 아내마저 떠나고 난 ‘실락원’의 세계에서 그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절망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울역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곳은 더 이상 흘러갈 곳을 잃은 구두닦이, 껌팔이, 녀마주이 같은 이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가장 낮은 그곳에서 그는 구두닦이 소년 진용이를 만난다. 그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중풍으로 누워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이였다. 어느 늦은 밤, 차마 길거리에 그를 두고 떠나지 못한 진용이가 발길을 돌려 다가온다.

이내 진용이 나의 두 손을 끌어 쥐면서 얼굴과 가슴을 무릎 위로 던져 왔다. 그리고는 내게 그 작은 등을 내맡긴 채 더럽고 남루한 나의 무릎을 눈물로 뜨겁게 적셔 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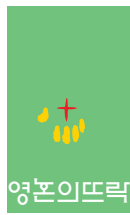
서울역을 오가는 수많은 행인들은 무심히 지나갔지만, 그 가엾은 아이는 기꺼이 손길을 내민 것이다. “그 안타까운 손잡음, 그 뜨거운 눈물, 그것보다 더 깊고 분명한 인간의 말이 있을 수 있더라.”

진용의 손에 끌려 간 허름한 집에서 안요한은 깨닫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진정 부끄러운 것은 남의 짐을 나누어지려는 생각을 못 했던 일이라는 것을. 가진 것 하나 없는 진용이는 오히려 나의 짐을 나누어지고자 하는데, 그 자신은 스스로 짐이 되는 것만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진용의 방에는 교복과 모자가 몇 년째 걸려 있었다. 아이는 언젠가 학교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흐느끼며 말하고, 그 순간 그 방은 하느님의 계시의 장소가 된다. 그에게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배움의 지식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소명인 것이다. 위를 바라볼 때는 보지 못했던 빛을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발견하였다. 그는 진용의 손을 맞잡고 기도한다. “아직도 제게 나누어 줄 것을 남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후 안요한은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다. 그리고 육신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보는 빛, 그 새빛을 시각장애인에게 전파하는 ‘새빛교회’를 시작하고, 고아나 거리 아이들을 위한 야간학교도 개설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성직자로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서울역의 수많은 행인 중 하나일지 모른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채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돌보아주었다. 진용이가 그렇고, 안요한이 노량진에서 만나는 또다른 구두닦이 소년 방울이가 그렇고, 또 안요한 자신이 그렇듯이, 그들은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드리는 하느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



주님이 지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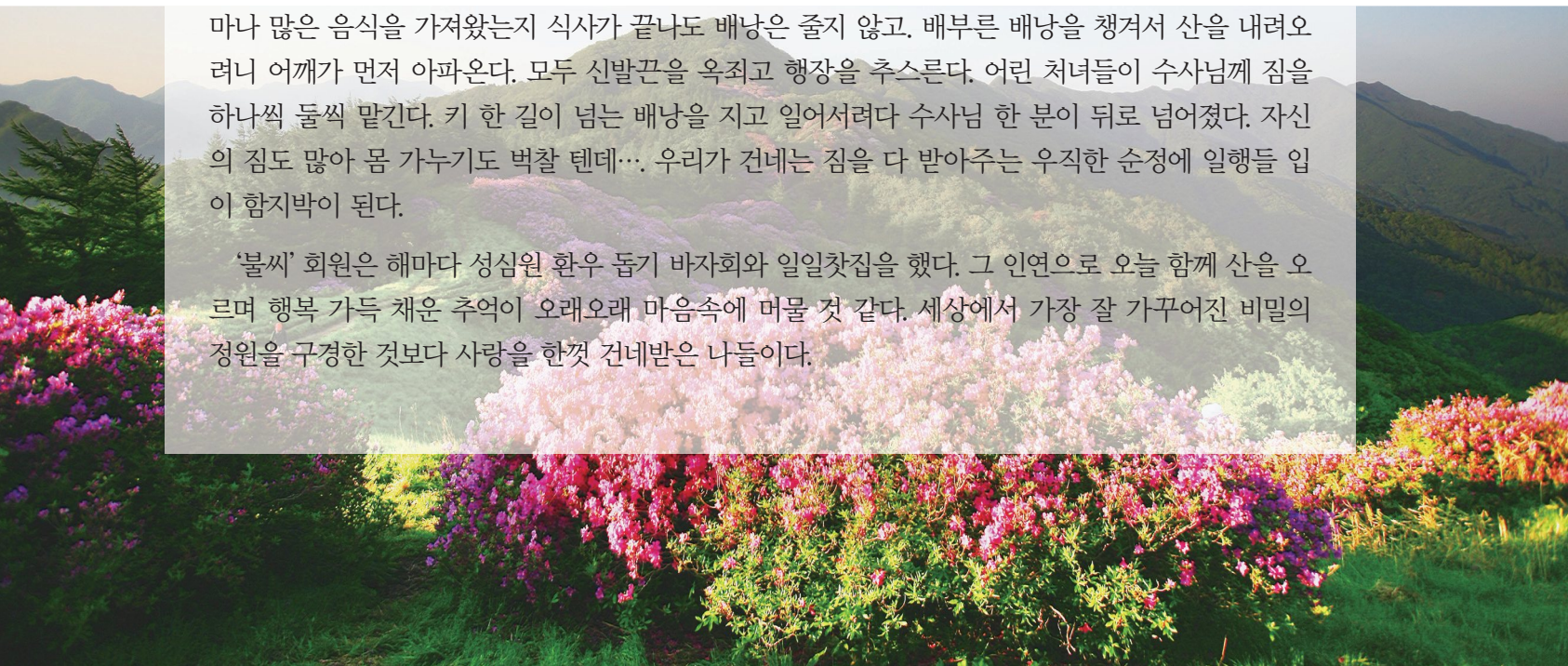
도경희 스텔라 시인/가톨릭문인회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지리산, 심호흡으로 오른다. 성경공부모임 ‘불씨’ 회원들과 산 초입에서 성심원 수사님을 만나 천왕봉으로 향한다. 숲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어 짙은 꽃내를 풍긴다. 부푼 가슴 못 이긴 철쭉들 모닥모닥 피어 산속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가지 끝마다 연둣빛 새순을 빼어 문 오리나무 아래 둘러 앉아 문 베아트릭스 지도수녀님께 배운 율동을 하며 성가를 부른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작은 새들이 쫓이를 꼬덕이며 반갑다고 재재거리며 이따금 느릅나무와 으름덩굴 사이로 날아다닌다. 간혹 수녀님의 고운 소프라노 음을 물어가기도 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 산을 오르는 내내 몇 번이나 찬송을 했던가! 힘들지만 팔을 높이 들어 바람을 안아보고 화음 맞추어 노래를 부르다보면 금방 새로운 힘이 솟아나온 한다. 노래 소리는 메아리로 돌아 ‘망 바위’에 어려 온다. 숨이 차다. 등성을 오르며 슬금슬금 주저앉는다.

중산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강낭콩을 넣고 가마솥에 밥을 지었다. 식지 않도록 겹겹이 천으로 싸서 손님 밥까지 지고 가는 어깨가 아파온다. 나는 바닥에 앉기도 힘들어 옆으로 뻗구레 순하게 누운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른다. “술~짝짝! 술~짝짝!” 소쩍새가 운다. “올해는 풍년 들겠네” 하던 수사님이 얼굴의 땀을 훔치며 앞서간다. 푸르른 구상나무, 전나무 숲을 지나니 고사목이 시간보다 더디게 걸어가고 있다. 연초록 물결이 낮게 낮게 일렁이는 시누대와 산죽의 바다가 길 양편에 펼쳐져 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외줄로 어울려 등을 보고 간다.

“옴마야, 이런 까끌막을 우찌 오른단 말이가!” 쇠사다리를 타고, 밧줄을 잡고 기어오르며, 쇠난간에 의지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다. 심장의 박동을 누르고 손차양을 얹고 멀리 바라본다. 저 아래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원 함양 쪽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구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보인다. 천왕봉 표지석 바로 밑 평탄한 곳에서 밥을 먹는다. 수사님은 우리 점심을, 우리는 수사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져왔는지 식사가 끝나도 배낭은 줄지 않고, 배부른 배낭을 챙겨서 산을 내려오려니 어깨가 먼저 아파온다. 모두 신발끈을 옥죄고 행장을 추스른다. 어린 처녀들이 수사님께 짐을 하나씩 둘씩 맡긴다. 키 한 길이 넘는 배낭을 지고 일어서려다 수사님 한 분이 뒤로 넘어졌다. 자신의 짐도 많아 몸 가누기도 벅찰 텐데... 우리가 건네는 짐을 다 받아주는 우직한 순정에 일행들 입이 함지박이 된다.

‘불씨’ 회원은 해마다 성심원 환우 돕기 바자회와 일일차집을 했다. 그 인연으로 오늘 함께 산을 오르며 행복 가득 채운 추억이 오래오래 마음속에 머물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비밀의 정원을 구경한 것보다 사랑을 한껏 건네받은 나들이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종교란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BS, 140222.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1강

과학철학자 장하석 교수는 과학을, 튼튼하고 확실한 지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 방법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은 과학자들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관측이나 실험으로 증명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도 단순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확실하다고 믿었던 과학이론이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결국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비과학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미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하석 교수의 부모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식 인물이지만 가끔 점을 보러 간답니다. 점쟁이를 용하다며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장하석에게 부모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사람이 용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인생이냐”라고 반론하셨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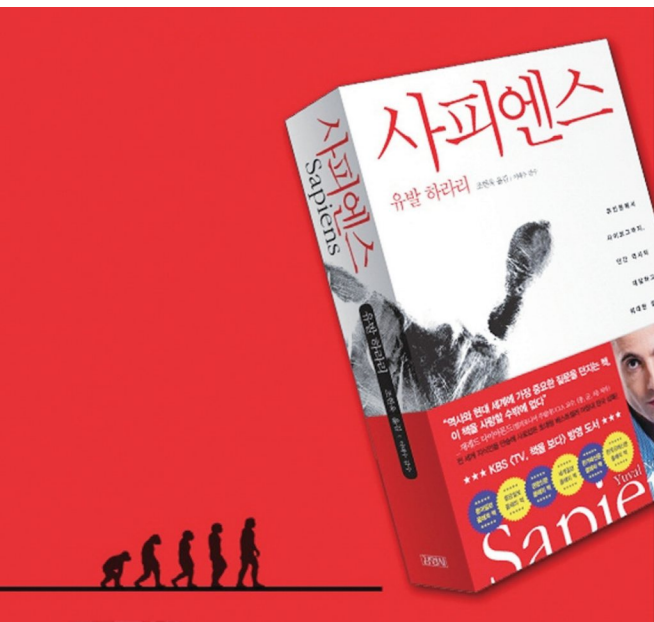
비과학적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장 교수에 의하면, 과학과 종교의 공통적 역할은 인간에게 세계관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다루면서 얘기가 서로 다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종교끼리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경우, 교회에서 지지하는 천동설을 반대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을 받고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조치됩니다. 그런 충돌과 갈등을 보면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과학과 종교는 내용의 차이가 아닌 방법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학의 입장에서는 종교도 미신과 같은 비과학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비과학적 영역이 있는 이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풀어놓습니다. 1. 인간을 협력하게 하는 힘인 인지혁명 2.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인 농업혁명 3. 돈·제국·종교라는 상상의 질서를 통한 인류통합 4. 지난 5백 년 동안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과학혁명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각각의 혁명들을 만들어낸 근본적 힘은 바로 사실이 아닌 상상의 힘, 즉 존재하지도 만져지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적(가수) 우린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라리 얘기는 이 얘기가 저 얘기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이야,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됐다가, 그게(그 믿음에) **없어지면 우리 자체가 산산이 붕괴될 것 같은...** 그래서 다시, 내가 믿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자기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상욱(물리학자) 저는 이럴 때 언제나 과학이란 대비를 시켜요. 이 세상에는, 그냥 사실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 팩트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400년 전이면 큰일 날 소리였지요. 즉 사실 영역까지도 인간의 상상이 개입된다면 인간이 불행해지죠. 이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윤대현(정신의학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외로 못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모르거든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해 과학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이런 것들이 오고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정의 중에 제일 재밌게 읽은 게, 과학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근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죠. - tvN, 190924, 책 읽어드립니다. E.01

삶을 끌어가는 것은 믿음

중남미 일대에는 일명 예수도마뱀이라 불리는 도마뱀이 산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도마뱀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들의 신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 영어선생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모두 긴장했고 선생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맥 빠지는 답을 던지셨다. “왼쪽 다리가 빠지기 전에 오른쪽 다리를 옮기고 또 오른쪽 다리가 빠지기 전에...” 졸음은 이미 우리를 훌쩍 떠나 버린 뒤였다.

그러던 몇 년 후 나의 궁금증은 하버드대학 같은 과 동물생리학 실험실에 있는 동료 대학원생들에 의해 풀렸다. 초고속 촬영기법을 사용하여 예수도마뱀의 행동을 한 토막씩 천천히 살펴보았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영어선생님의 사이비 이론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예수도마뱀들은 실제로 한쪽 다리가 미처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다리를 뺄 수 있는 식으로 물을 건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결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아니신가. 과학은 이른바 형이하학이지만 종교는 형이상학 중에서도 으뜸이 아니던가. 과학은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명예를 지고 있지만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믿음은 증명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1장, 9번째 이야기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 기우는 부잣집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앞에서 푼 문제가 틀렸나 싶어 다시 뒤로 돌아가는 다혜에게 기우는 말합니다.

만약 지금 실전 수능이고 이게 첫 문제였으면 넌 시작부터 완전 엉킨거야. 이거 봐, 맥박도 완전 엉켰잖아. 심장이 거짓말을 못해. 시험이란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팽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다혜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장악하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기세.

과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각자가 이것이 삶의 정답이라고 외칩니다. 정답은 ‘옳은 답’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답’이기도 합니다. 정답에 얽매이면 그 외는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나를 기세 있게, 그리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일림



교구장 동정

창원 파티마 성경학교 졸업식

일시: 2월 23일(주일) 14:00

장소: 파티마병원

견진성사

일시: 3월 1일(주일)

장소: 상남동성당

교구/본당

사제평의회

일시: 2월 25일(화) 10:30

장소: 교구청

본당 사목 방문

2월 27일(목): 망경동, 옥봉동

지구장 본당 방문

2월 18일(화): 용잠, 진영, 수산, 성심원(준), 산청, 거창, 합천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모파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2월 27일(목) 13:3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61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시: 3월 1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2020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개강일: 3월 2일(월) 장소: 창원 팔용동 성당

기초 과정- (월)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연령, 학력)

봉사자 과정- (월)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 기초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중 1)

지도자 과정- (월) 13:30

수강료: 35만 원

대상: 1) 봉사자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

격증 사범2 이상 (1, 2중 1)

문의: 055·249·7061, 010·9088·4864

병원 미사 안내

마산: 마산의료원 (화) 18:00

지하 1층 대강의실

삼성병원 (금) 18:00

본관 지하 6층 회의실

창원: 파티마병원 (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토) 16:00

암센터 지하 1층 천주교 원목실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아)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젊은이 기도학교(진주)

대상: 2030 젊은이

일시: 매월 첫째주 (토) 17:00~(주일) 14:00

문의: 작은자매 관상선교수녀원 010·8246·9460

기 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춘천교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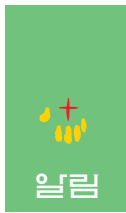
일정: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초등(6차)13.5만 원 / 중·고등(2차)14만 원

신청: 3월 9일(월) 09:30 온라인 신청(선착순)

문의: 청소년활동부 033·255·6602

품격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GCA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가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종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헌출발, 미사4회, 성지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 순례 1박2일 15개 교구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3월 28일 이스라엘 순례 9일 349만원 KOREAN AIR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5월 18일 프랑스 성모성지 순례 13일 409만원 ASIANA AIRLINES											
6월 19일 알프스 수도원 순례 12일 489만원 KOREAN AIR											
본도여행사 02.852.8525											



성모신심 피정(성모상 행렬)

일시: 3월 16일(월) 09:30~16:00

(파견미사 15:00~16:00)

장소: 월영성당

강사: 마진우(요셉) 신부 (대구대교구)

문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마산교구 010·4848·7106



사순 낮피정

일시: 3월 2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주제: 오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영적치유, 내적치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강사: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사: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문의: 010·9421·3377, 010·2585·8919

안의선교 제6대 사목위원회 개편

위원

회장: 정정숙(세레나)

부회장(여): 정옥이(동나)

총무: 전도상(베드로)

전례분과장: 이윤경(유스티나)

재경분과장: 강인구(요한보스코)

구역분과장: 김해근(토마스)

시설분과장: 장익수(레오)

교육분과장: 박병선(루피노)

안의

박용순(요셉)

하은옥(베르타)

박해영(레오)

조군자(마리아나)

한기조(구이도)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 안내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서’를 3월 1일 사순
제1주일부터 1달간 본당을 통해 접수받으
며, 봉헌기간은 2022년 2월까지입니다.

봉헌금은 본당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나, 편의상 교구를 통해 직접 납부하실
분은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055·249·7121

※ 기부금 영수증: 납부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생림선교 제6대 사목위원회 개편

생림

회장: 박능찬(바시오)

총무: 손병임(루시아)

전례분과장: 양경심(레지나)

시설분과장: 김형우(요한)

한림

임정애(올리아나)

강숙희(보나)

강대호(안토니오)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
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24일(월) 13:00~17:30	월남동성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황미란 수녀 (로즈마리, 토티 베네딕토 수녀회)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2월 24일(월) 19:00	반송성당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정대영 신부(모이세, 광주교구)		010·9421·3377
진주지구	2월 24일(월) 19:30	신안동성당	성령의 흔적	박힘찬 신부(시몬, 부산교구)		010·3846·1980
청년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 1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 19세~35세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령로 489 (황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가톨릭신문 투어

- ▶ 4/15 발칸반도(예주교회) 12일 359만원
- ▶ 4/16 유럽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 4/21 터키, 그리스 13일 399만원
- ▶ 4/28 동부유럽 10일 345만원
- ▶ 5/14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2020-1학기 교구 『여정』성경공부 일정

- 수강료 : 일반여정 - 2만 원, 은빛여정 - 1만 원(교재비 별도)
-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교 구	3. 3.(화) 10:00	마태오 복음서
구 암 동	3. 2.(월) 2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산 호 동	3. 5.(목) 20:15	마태오 복음서
삼 계	3. 3.(화) 10:00	예언서
	3. 4.(화) 10:00	은빛(창세기)
	3. 6.(금) 20:00	시서와 지혜서
상 남 동	3. 4.(수) 14:00	은빛(지혜여정 4)
양 덕 동	3. 2.(월) 19:30	역사서 1
	3. 3.(화) 10:0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완 월 동	3. 3.(화) 2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 5.(목) 10: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월 남 동	3. 3.(화) 10:00	역사서 1
	3. 4.(수) 20:00	마르코 복음서
월 영	3. 3.(화) 10:0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3. 4.(수) 19:30	마르코 복음서
의 령	3. 4.(수) 10:3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창 념	3. 4.(수)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칠 원	3. 6.(금) 10:00	은빛(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함 안	3. 6.(금) 10:40	마태오 복음서
호 계	3. 3.(화) 10:00	요한 복음서

창원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가 음 동	3. 5.(목) 10:00	요한 복음서
대 방 동	3. 3.(화) 10:4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덕 산 동	3. 2.(월)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 3.(화) 10:00	역사서 1
	3. 5.(목) 10:30	은빛(지혜여정 1)
명 서 동	3. 2.(월) 19:30	역사서 1
	3. 5.(목) 12:40	은빛(지혜여정 3)
반 송	3. 3.(화) 10:40	역사서 2
	3. 4.(수) 10:40	요한 복음서
사 림 동	3. 5.(목) 20:10	역사서 1
사 파 동	3. 2.(월) 20:00	바오로 서간
	3. 6.(금) 10:40	예언서
양 곡	3. 6.(금) 10:4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여 좌 동	3. 3.(화) 10:00	은빛(욥기와 코헬렛)
용 잠	3. 5.(목) 20:10	바오로 서간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가 좌 동	3. 4.(수) 19:30	바오로 서간
금 산	3. 3.(화)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문 산	3. 2.(월) 19:30	예언서
봉 곡 동	3. 3.(화) 10:00	은빛(지혜여정 5)
	3. 4.(수) 19: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사 천	3. 6.(금) 10: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 6.(금)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산 청	3. 4.(수) 10:00	은빛(지혜여정 3)
	3. 6.(금) 19:30	바오로 서간
상 평 동	3. 5.(목) 20:00	바오로 서간
신 안 동	3. 4.(수) 20:1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옥 봉 동	3. 6.(금) 19:30	마태오 복음서
칠 암 동	3. 3.(화) 10:00	마태오 복음서
하 대 동	3. 5.(목)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함 양	3. 4.(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거제지구·복지시설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대 건	3. 5.(목) 10:00	은빛(탈출기)
	3. 6.(금) 11:10	요한 복음서
	3. 6.(금)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마산교도소	3. 4.(수) 13:30	마르코 복음서
북 신 동	3. 5.(목) 10:00	마태오 복음서
	3. 6.(금) 10:00	은빛(지혜여정 1)
작은 예수회	3. 5.(목) 10:00	은빛(탈출기)
장 승 포	3. 4.(수) 19:30	역사서 1
장 평	3. 6.(금) 10:30	오경 2
지 세 포	3. 4.(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태 평	3. 6.(금) 19:30	오경 1